

“강력한 멈춤 실천해달라”

군산시, 2주동안 친척·지인모임 자제... 타지역 방문 후 자발적 진단검사 당부



군산시가 2주 동안 타지역과 관련된 친척, 지인모임 등의 강력한 멈춤 실천을 강조했다. 9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6명, 8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은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을 방문한 후 가족간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4차 대유행과 더불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소모임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주 동안은 타지

역과 관련된 친척, 지인모임 등의 강력한 멈춤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친척, 가족간 만남이 계속된다면 하루 수십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연계에 부딪혀 군산에서의 대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일부터 군산은 전주, 익산, 완주 혁신도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됐으며 현재와 같이 모든행사,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회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모임을 8인까지 허용되던 것을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한다. 이는 가족 간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백 소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상황에 지역업체 및 소상공인분들의 상심이 매우 크겠지만 지금 막지 못하면 더욱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2주 동안은 타지역에서 군산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모임과 소모임 등을 자제하는 강력한 멈춤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바람

시민체감 중점과제 발굴 집중

군산시 공직사회에 시민체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바람이 불고 있다. 시는 방역, 경제성장, 현안, 민생업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각 부서별로 시민체감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을 맞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체감도가 높고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해, 한해 동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시민 만족 행정구현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과제에 대해 적극행정 실무부서 1차 사전선정 검토를 거친 뒤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8월 중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될 경우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적극행정의 핵심가치인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공직사회가 기존의 관행과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으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군산시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 받을 수 있

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역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에 대해 상속인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해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원스톱서비스는 현재까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총 5182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총 8372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 물리학과와 서강대 물리학과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군산대학교에서 17차 이탈리아-한국 상대론적 천체물리 심포지엄과 CQeST 워크숍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병행해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상대론적 천체물리 심포지엄’

군산대·서강대 물리학과 이탈리아·한국 대면·비대면 병행 개최

군산대 물리학과와 서강대 물리학과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군산대학교에서 17차 이탈리아-한국 상대론적 천체물리 심포지엄과 CQeST 워크숍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병행해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1987년 한양대에서 개최된 이래 한국과 이탈리아가 격년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강대학 이범훈 교수, 스테파노 스코펠(Stefano Scopel) 교수와 군산대학 김상표 교수, 김진영 교수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군산대학교 광범선 총장과 페데리코 파일라(Federico Falla) 주한 이탈리아 대사도 축사를 했다. 학술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대면 참석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성공리에 진행하여, 향후 학술행사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대표인 레모 루피니(Remo Ruffini) 교수는 상대론적 천체물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감마선 폭발(GRB)을 50년 이상 연구했다. 학술발표에는 이탈리아 교수뿐만 아니라 대만대, 중국 교수도 발표하였고, 국내의 전문가 다수가 발표했다. 심포지엄과 동시에 서강대 물리학과와 CQeST 창립 학회를 군산대학교 물리학과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에는 서강대학 심종혁 총장의 축사가 있었고, 전 이탈리아 대사관 과학관이었던 캉가넬라(F. Cangandla) 교수의 이탈리아와 한국의 과학 교류의 전망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중국과학원의 롱건차이(Rong-Gen Cai) 교수와 동경대학의 주니치 요코야마(Jun'ichi Yokoyama) 교수의 초청 강연과 국내 전문가들의 특강과 발표도 있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누적 579명

익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40대와 50대 각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 2937번(익산 578번)은 40대다. 이 확진자는 전북 2826번(익산 565번)의 가족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인 전북 2938번(익산 57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택인 익산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다. 한편,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 열람·의견청취

군산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3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연) 열람 및 의견을 오는 30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公示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제·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심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결정·公示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 33개 기관·단체, 중앙동 침수피해 돕기

익산의 기관·단체들이 중앙동 침수피해 상인 돕기에 힘을 보탠다. 익산시는 지역 33개 기관·단체들이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앙동 상가 활성화와 지원 릴레이 장보기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참여 기관·단체장 등이 침수피해 상가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홍보하는 SNS챌린지도 벌일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행사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관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침수피해로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위해 이번 장보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주요 기관단체에 감사하며 시에서도 피해 상가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